

위도띠뱃놀이 「願堂重修記」(1900년) 연구*

서종원**

〈차 례〉

1. 서론
2. 「願堂重修記」 원문 소개
3. 「願堂重修記」 추령기 분석
4. 본 문서를 통해 본 위도띠뱃놀이 願堂의 위상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위도띠뱃놀이의 당집인 願堂과 관련된 문서 「願堂重修記」를 소개하고, 이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위도띠뱃놀이 '원당'이 신앙처로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위상]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願堂重修記」는 위도띠뱃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대리 마을의 達成 徐氏 집안에 전해오는 문서다. 이 문서는 1900년도 당시 원당 중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크게 서문과 추령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문에는 당시 어떤 연유로 원당을 중수하게 되었는지가 기록돼 있으며, 중수기 부분에는 원당을 중수하는 과정에 돈을 추렴한 인물이 명시돼 있다. 중수기의 내용은 위도 내지인과 외지인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외지인 중에는 전라북도 여러 지역을 비롯해, 오늘날 전라남도, 충청남도, 황해도, 제주도 지역 속한 추렴자들의 명단 등이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05-J02201).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본 문서에 기록돼 있다.

자료로서 『願堂重修記』가 지닌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본 문서에 기록된 추렴기 내용을 통해 당시 위도띠뱃놀이의 원당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기어업으로 인해 일찍부터 위도 지역에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구술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자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문서의 중수기 부분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도띠뱃놀이의 원당은 단지 대리 마을 주민들의 신앙처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평도의 임경업 사당인 충민사와 더불어 서해안 어민들의 주요 신앙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위도띠뱃놀이, 원당중수기, 願堂, 추렴기, 조기어업

1. 서론

본 연구는 위도띠뱃놀이 당집인 願堂과 관련된 문서 『願堂重修記』를 소개하고, 이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위도띠뱃놀이 ‘원당’이 신앙처로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위상]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願堂重修記』는 본래 위도띠뱃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대리 마을의 達成 徐氏 집안에 전해져 오던 문서다. 이 문서에는 필자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원당중수기’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자료의 명칭을 ‘원당중수기’라 명하게 된 연유는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위도띠뱃놀이로 알려진 대리 마을의 원당 중수와 관련된 것임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원문을 소개하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문서의 앞부분이 누락된 흔적으로 볼 때, 누락된 부분에는 이 문서의 명칭이 명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서의 여러 곳에서 이 명칭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당중수’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목 옆에 보이는 1900년도는 이 문서가 작성된 년도를 말하는 것인데, 『願堂重修記』의 발문에 ‘庚子三月日’이라는 내용과 문서에 보이는 위도 주민들의 이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서가 1900년대에 작성된 것이 확실하기에 정확한 년도를 명시하였다.

위도 지역,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도띠뱃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대리 마을에서

전해오던 이 문서에는 당시(1900년) 위도띠뱃놀이 원당을 중수하게 된 배경과 함께 원당 중수에 필요한 비용을 추렴했던 인물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다.¹⁾ 물론 이 문서에는 중수에 필요한 금액을 추렴했던 인물만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거주지와 추렴한 액수, 그리고 그들이 운영했던 船舶 등이 기록돼 있다.

위도띠뱃놀이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굿이며, 현재 무형문화재 제82-다호로 지정된 서해안의 대표적인 풍어제의 하나다. 오늘날 위도띠뱃놀이는 위도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굿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본래 위도 지역 마을 중에 하나인 대리 마을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행해지는 마을굿이다. 이런 연유로 위도띠뱃놀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 이전의 위도띠뱃놀이 명칭은 ‘대리원당제’ 혹은 ‘대리원당굿’ 등으로 불리었다. 대리 마을의 예전의 명칭인 ‘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장원당제(굿)’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84년도에 발간한 『蠓島의 民俗-大里願堂祭篇-』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위도띠뱃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용어가 학술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³⁾

본 연구에 앞서 이 문서는 줄고의 『蠓島 초기 波市の 民俗學的 考察』(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간된 『위도띠뱃놀이』(2007),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마을신앙사전』(2009)에 소개된 바 있다. 이들 자료에서는 『願堂重修記』 일부만이 간략하게 소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 자료의 핵심 부분인 추렴기 부분을 통해 당시

1) 이 문서가 작성된 해를 1900년으로 보는 근거는 문서 서문 끝에 ‘庚子三月 日’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 보이는 위도 주민 ‘徐益兼’이라는 인물이 대리 마을 서○석(남·78세) 씨의 증조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문서는 1900년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2) 국립민속박물관, 『蠓島의 民俗-大里願堂祭篇-』, 1984.

3) 위도띠뱃놀이에 대한 용어가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위도띠뱃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위도띠뱃놀이에 대한 용어는 추후에 별도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속경연대회 당시 기존의 용어가 아닌 위도띠뱃놀이에 대한 용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박해준의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위도띠뱃놀이를 중심으로-」(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12쪽 각주 10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위도띠뱃놀이 원당이 신앙처로서 지닌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願堂重修記」의 원문을 소개하고, 문서의 서문 내용과 추림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⁴⁾

2. 「願堂重修記」 원문 소개

「願堂重修記」는 모두 14쪽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序文과 추림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서는 여러 장이 합쳐진 첩 형태로 묶여져 있는데,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문의 내용은 한 사람이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추림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돈을 추림했던 인물이 본인의 이름과 지역, 그리고 추림액수 등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본 문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자료에 실린 序文의 원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 다음과 같다.⁵⁾

(전반부 결실) 瞻夫大猪項願堂處在大洋峻峰之上靈異之氣特萃於此而人皆尊瞻崇致者而惟堂神是靈矣凡於齋□有禱必應而沿八路大□□□會于此輒先□□皆得其冥佑而財殖寄(?) 旺焉香幣之祝執不以誠而但設堂已久風雨滲漏惟修葺是急而第其財力不敷心上經營若無良方惟願各處大小缸僉座中特念共濟之義各出一臂之力隱(?)宜傾助俾如斯堂功觀之地千萬幸甚

庚子 三月 日

-
- 4) 위도띠뱃놀이에 대한 연구는 하효길·황루시·김윌덕·박혜준 등의 연구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위도띠뱃놀이의 진행 과정과 변화 양상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제의에서 보이는 띠배가 지닌 상징성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위도띠뱃놀이 원당이 지닌 위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 5) 본 장에서는 가급적 「願堂重修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실으려고 하였다. 다만 종이가 훼손되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로 표시하였고, 빠른 필체로 인해 글자의 명확한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글자 옆에 ‘(?)’ 부호를 붙여 놓았다.

본 문서의 서문의 내용 중에는 보관 과정에서 원문을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서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원문 내용을 토대로 서문에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위도띠뱃놀이 원당은 예전부터 영험성이 남달랐으며, 빌거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해주는 신앙처였는데, 風雨로 인해 물이 세고 스며들어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족하여 중수를 할 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각처에서 온 大·小缸이 비용을 각출하여 무사히 당을 보수할 수 있었다.

비록 전체적인 파악은 쉽지 않지만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위도띠뱃놀이의 원당은 오래전부터 영험성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당시에 원당을 중수하게 된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문서의 서문의 첫 줄에 명시된 ‘大猪頭’이라는 용어는 위도띠뱃놀이가 전해오는 대리 마을의 옛 地名이다.⁶⁾ 대리 마을을 과거에 대저항이라 부르게 된 연유는 마을의 지형이 돼지의 목과 같기 때문이다. 대저항 다음에 기록된 ‘願堂’은 ‘大里願堂祭’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는 당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당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무언가를 기원하는 장소로 보인다. 서문에서 눈여겨 볼 내용이 이들 용어 이외에도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두 용어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願堂重修記』 서문 바로 다음 장에는 “蠓島都執綱 李仁範, 化主 金奇瑞·徐益兼·李錫兼·申得三·白允瑞·白子天·金致敬·金泰瑞”가 적혀 있다. 여기에서의 ‘都執綱’은 당시 위도 지역의 대표자[향약의 대표자]로 보인다. 그리고 ‘化主’는 오늘날 제물을 준비하고 제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로 볼 수 있지만,⁷⁾ 당시에는 원당 중수를 위해 구성된 임시조직에서 책임을 맡았던

6) 김정호가 작성한 『大東地志』에도 이 명칭이 보인다(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대동지지』 전(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6).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화주’라는 용어는 오늘날 위도띠벳놀이 제의 과정에서 祭需를 장만하거나 제의를 진행하는 사람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⁸⁾ 문서에 보이는 화주가 띠벳놀이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화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모두 14쪽으로 구성된 『願堂重修記』는 절반 이상[6쪽 14쪽]이 원당을 중수하는데 돈을 추렴한 사람, 그리고 추렴 금액과 그들이 운영하던 선박 등이 기록된 추렴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추렴기는 돈을 기부한 사람에 따라 위도 주민인 내지인과 위도 주민이 아닌 외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지인들을 오늘날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출신 지역별로 정리하면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충청남도, 황해도, 제주도 지역으로 나뉜다. 추렴기 부분에서 6-7쪽에 기록된 내용은 위도의 내지인들의 명단과 그들이 기부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서 원문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쪽>

都執綱 李仁範 錢貳拾伍兩

都鄉員 金達瑞 錢貳拾兩

<7쪽>

本村

金生員奇瑞 錢參拾兩

金裨將昌圭 錢壹佰兩

申得三 錢捌拾兩

李伯元 錢參拾兩

7) 사전적 의미에서의 화주는 별신굿이나 도당굿 따위의 祭主로 명시돼 있다.

8) 1980년대만 하더라도 위도띠벳놀이의 제관은 제만(화주) 1인, 원화장 1인, 부화장 2인, 독축관 1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金士連 錢拾五兩
 金士逸 錢拾兩
 吳在瑜 錢貳拾兩
 李道權 錢捌拾兩
 雄島里 錢拾兩
 食島里 錢拾兩

이러한 형식으로 기록된 추렴기의 내용은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돈을 기부한 인물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아울러 추렴한 액수가 적혀 있다. 이런 양상은 외지인들이 추렴한 내용인 8-14쪽도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기록돼 있는데, 본문에 실린 추렴기 원문 내용을 편의상 표 안에 넣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熊浦 劉敬善 錢拾兩 古群山 深九味 朴自善 錢陸兩 界花島 金乃弘 錢伍兩 智島 朴近拜 錢貳兩(商缸) 崔泰彦 錢貳兩(商缸) 忠清道 後浦 金文字 錢肆兩 上 智島 蟬峙 金觀範 缸 錢貳兩 蟬峙 金千必 缸 錢貳兩 蟬峙 金永旭 缸 錢貳兩 (8쪽)	飛鴈島 金允成 大小缸 錢拾陸兩 莞島 楸子 金先達文權 錢貳兩(商缸) 楸子 朴正瑞 錢貳兩(商缸) 忠清道 牙山 芑浦 金成俊 錢參兩(商缸) 古群山 通里 朴寬淑 錢貳兩(商缸) 田富弼 錢貳兩(商缸) 鎭里 崔斗玉 錢貳兩(商缸) 林順昌 錢貳兩(商缸) 廣川 金玉仁 錢貳兩(商缸) 松洞金土走即來缸 桂花 下里 鄭衙將 仁參 錢拾伍兩 鄭君五 錢拾伍兩 □□ □土(?)進 錢伍兩 (9쪽)
□□ □□□尹子信 錢文伍兩 飛應 扶安 月浦 白公鉉 錢文伍兩 弓項 李化白 錢伍兩 法聖 金道連 錢伍兩 桂花島 李道汝 錢伍兩 羅浦 郭道成 錢伍兩 夜味島 李性化 錢伍兩 飛鴈島 趙敬化 錢伍兩 夜味島 崔成八 錢伍兩 (10쪽)	夜味島 尹明五 錢伍兩 古群山 深九味 尹德三 錢伍兩 韓山 厚浦 金春三 錢伍兩 玉阜 京浦 梁聖學 錢伍兩 夜味島 鄭君俠 錢伍兩 夜味島 林千五 大小船 錢十兩 夜味島 朴忠(?)蓋 錢伍兩 芑浦 鄭得公 錢伍兩 萬頃邑 金自允 錢伍兩 夜味島 金泰逸 錢伍兩 □□□ 金德省 錢伍兩 (11쪽)

夜味島(?) 金正文 大小缸 錢拾兩 忠清道 舒川 西天 開也島 林汝成 錢伍兩 夜味島 崔公凡 錢伍兩 西天 介島 朴道連 錢伍兩 桂花島 金汝三 錢伍兩 夜味島 金宗逸 錢伍兩 飛鴈島 全必善 錢伍兩 斗里島 白公凡 錢肆兩 軍山 深里 尹公信 錢伍兩 飛鴈島 朴贊瑞 錢伍兩 格浦 辛道汝 小缸 錢伍兩 (12쪽)	頓池里 金道凡 錢文參兩 西天 松洞 崔允五 錢肆兩 黃海道 雍津 龍虎島 李成實 錢文伍兩 飛鴈島 李春五 錢 扶安 金義卿 錢拾五兩 辛元敏 錢伍兩 金明初 錢文伍兩 食島 李元伯 錢伍兩 茅項 金汝成 錢肆兩 金提 趙鎬日 錢肆兩 泰仁 李永淑 錢二兩 車輪(?)島 鄭寬五 錢壹兩 金元西 錢參兩 □□賢 錢參兩 (13쪽)
□與□ 錢參兩 白奇瑞 錢伍兩 李化兼 錢參兩 興德 厚浦 金永瑞 錢拾兩 本里 李伯彥 錢貳拾兩 本里 李仁範 錢拾兩 石龜 白奇瑞 錢拾兩 箭幕 申華燮 拾兩 本里 金公三 錢伍兩 (14쪽)	

위에서 정리한 표를 통해 당시 원당 중수에 돈을 추렴한 사람들은 위도 내지 인의 숫자 못지않게 타 지역 출신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중수기에 기록된 외지인들의 명단이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돼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에 돈을 기부한 명단과 그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라남도·충청남도·황해도, 그리고 오늘날 제주도 지역에 속한 추자도까지 매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돈을 추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지역들 대부분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까지 어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3. 「願堂重修記」추렴기 분석

위도띠뱃놀이의 원당 중수와 관련된 「願堂重修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당 중수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추렴한 내력이 기록된 추렴기이다. 무엇보다 추렴기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어업·상업을 목적으로 당시 위도 지역과 교류했던 여러 지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願堂重修記」의 추렴기 부분에서 이 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렴기의 내용을 통해 위도띠뱃놀이 원당의 기능·역할과 위도띠뱃놀이의 신앙적 범위[신앙권]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자료로서 「願堂重修記」가 지닌 가치라 할 수 있다.

「願堂重修記」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어떤 연유로 외지인들이 위도띠뱃놀이의 원당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추렴한 인물 중, 일부 명단 옆에 추렴한 금액과 함께 ‘商缸·大小缸·漁缸’ 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추렴한 이들은 어업 혹은 상업에 종사하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⁹⁾ 다만 별도로 위의 선박의 종류가 기록돼 있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파악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¹⁰⁾

9) 앞서 언급했듯이 추렴인 옆에 기록된 商缸, 大小缸, 小缸, 缸은 그들이 운영하던 선박의 종류로 볼 수 있다. 商船은 고기를 사들이는 배이고, 船은 고기를 잡는 일반 漁船일 가능성이 높다. 대소선은 큰 배중에서 비교적 작은 배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이들 선박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조선후기의 자료인 『經世遺表』 14권 均役事目追議 제2 船稅편을 보면, 지역과 어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小船은 길이가 3把만에서 3把까지의 선박을 말한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4把에서 2把사이의 선박을 소선으로 통일하여 세를 걷었다. 『萬機要覽』에는 湖南船 중 小船은 2.5把 이상이고, 2把 이하를 小小船으로 정하였다. 반면 호남선 중 大船은 6.5把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재근, 『우리 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290쪽).

10) 본 자료를 보면 추렴자 명단 옆에 선박의 종류(商缸, 大小缸, 小缸, 缸)가 명시된 경우가 있는 반면, 전혀 명시가 되어 있는 않은 경우가 있다. 선박의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추렴자들이 어떤 선박을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명시된 지역을 선박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로 정리하면, 商缸 10척(전북·4척, 전남·2척, 충남·2척, 제주도·2척), 大小缸 3척(전북·3척), 小缸 1척(전북·1척), 缸 3척(전남·3척)이다.

원문을 소개한 앞장의 내용을 토대로 추렴자들을 지역별로 다시 정리하면,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는 오늘날 익산시에 속한 熊浦, 부안군에 속한 계화도·돈지리·격포·모항, 군산시에 속한 고군산도·비안도·야미도·나포, 김제시에 속한 만경, 정읍시에 속한 태인 지역민이 원당 중수 과정에서 돈을 추렴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는 위도와 오래전부터 왕래가 잦았던 법성포를 포함하여, 지도군 출신의 추렴자가 보이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한산·아산·광천·서산·서천 등 오늘날 충청남도 해안 지역 출신의 추렴자들이 기록돼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 본도가 아닌 오늘날 제주도에 속한 추자도 지역의 추렴자 명단이 보인다. 그리고 비교적 위도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황해도 웅진의 용호도 출신의 명단이 본 문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황해도 지역의 어선들도 어업 등을 목적으로 위도 지역을 찾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願堂重修記』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 원당 중수 과정에서 위도 주민과 외지인들이 추렴한 액수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정리하면 총 827兩이다.¹¹⁾ 『願堂重修記』에서 보이는 화폐는 錢과 錢文 두 종류인데, 이 중 ‘錢文’은 당시까지 통용되던 상평통보로 당일전이라고도 부르는 엽전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당시 사용되던 錢이 어떤 종류의 화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사용되는 錢이 매우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 역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서다. 이로 인해 당시 錢 1냥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1냥의 가치는 대략 벼 한말이 조금 넘는 정도로 보인다.¹²⁾

11) 당시 위도 지역은 물론 서해안 일대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893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거두었던 세금의 총 액수가 9,500兩 정도라는 사실에서 놓고 보면 당시 원당 중수를 목적으로 걷어 들인 831兩의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창군에서 걷어 들인 세금의 대략 1/11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만을 놓고 보면 원당 중수에 걷어 들인 금액이 그리 적은 액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이문현, 『1892년 순창군수의 부임과 그 비용-순창군의 회계문서 『고청결총여연례웅상하이정절목록』의 문석-』, 『생활문화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26쪽).

앞서 살펴보았듯이 『願堂重修記』의 추렴기에 기록된 인물은 위도 지역민은 물론, 황해도의 웅진, 충청남도의 아산·광천·후포·서천, 전라남도의 지도·법성포, 제주도의 추자도, 전라북도의 계화도·군산·부안·웅포·격포·고군산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상인과 어민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외지 어선과 상인이 원당 중수를 위해 기부한 금액은 적게는 1냥[壹兩]에서 많게는 16냥[拾陸兩]까지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금액을 추렴했으나, 위도에 속해 있는 치도리·식도리에서는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에서 추렴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

당시 원당 중수 과정에서 모아진 총 827兩 중, 위도 지역[지역민과 마을]에서 기부한 금액이 508兩이며, 외지인이 추렴한 금액은 319兩이다. 먼저 위도 지역[지역민과 마을]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역	마을	추렴자	추렴 금액(냥)	비고
蠓島	大里	李仁範	25	중복
		金達瑞	20	
		金奇瑞(生員)	30	
		金昌圭(裨將)	100	
		申得三	80	
		李伯元	30	
		金士連	15	
		金士逸	10	
		吳在瑜	20	
		李道權	80	

12)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필자가 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사에서는 당시의 화폐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당시에 통용된 화폐의 구매력평가(PPP)를 통해 현재와 비교하는 방식이 경제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물론 이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이 시기(1900년 당년에만 한정) 전라도 다른 지역에서 통용되던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13) 추렴자의 명단이 없고 추렴 금액 옆에 지역 명칭만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지역 공동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李伯彦	20	
		李仁範	10	중복
		金公三	5	
	雉島里		10	마을 단위
	食島里		10	마을 단위
	車輪島	鄭寬五	1	
		金元西	3	
		□□賢	3	
		□與□	3	
		白奇瑞	5	
		李化兼	3	
	食島	李元伯	5	
	石龜	白奇瑞	10	
	箭幕	申華燮	10	



〈그림 1〉 위도면 지도

위의 표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원당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위도띠뱃놀이와 관련된 대리 마을 이외에 위도의 여러 마을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추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보이는 치도리·식도리는 대리 마을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치도리는 위도 본도의 중

양부에 위치한 곳이며, 식도리는 위도 본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도서 지역이다. 반면 거륵도·석금·전막리는 대리 마을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 이 중 거륵도는 식도리와 마찬가지로 본도에서 떨어져 있는 섬으로 오늘날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막리는 대리 마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석금은 전막리 마을의 바로 옆에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¹⁴⁾

반면 위도 지역이 아닌 외지인들이 추렴한 금액 323兩의 내역을 오늘날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인원(名)	액수(兩)	주요 세부 지역	
전라북도	43	254	부안군	계화도 · 궁항 · 돈지 · 격포 · 모항
			김제군	김제 · 만경
			고창군	홍덕후포
			군산시	고군산 · 야미도 · 비안도 · 나포 · 삼구미 · 개야도
			익산시	웅포
			정읍시	태인
전라남도	6	13	영광군	법성
			신안군	지도읍
충청남도	8	28	홍성군	광천
			아산군	둔포
			서산군	한산후포
			태안군	서천
황해도	1	5	웅진군 용호도	
제주도	2	4	추차도	
출처불명	3	15		

외지인들이 추렴한 금액 319兩 중, 대략 79%가 위도와 인접한 전라북도에서 온 이들이 추렴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어업이라는 생업 활동 과정에서 위도와 빈번하게 교류가 많았던 고군산도 주민들이 위도띠뱃놀이 원당 중수에 많은 돈을 추렴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이북 지역에

14) 지역 이외에 본 문서에 기록된 개별 인물에 대해서는 추후 현지 조사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포함되어 있는 웅진군 용호도 지역민도 추렴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1900년도 무렵만 하더라도 비교적 먼 지역에서도 어업과 상업 등을 목적으로 위도 지역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렴기 내용에서 외지와 내지인에 의해 걷은 막대한 금액의 사용처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 원당 중수를 목적으로 걷은 금액 모두가 원당을 중수하는데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통해 위도 원당 중수에 대리 마을 이외에 여타의 다른 위도 지역, 그리고 위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어선들까지 기부를 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토대로 외지인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 위도띠뽀놀이 원당 중수에 돈을 기부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중 후자 부분은 장을 바꿔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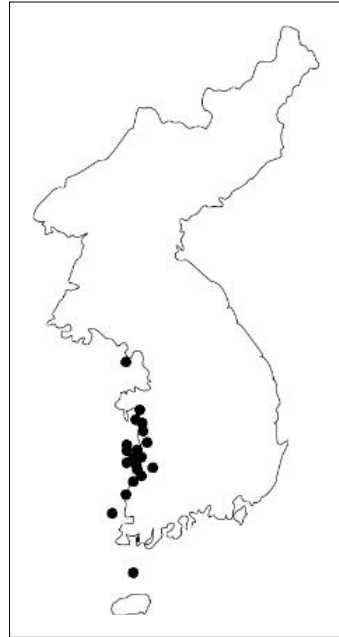
4. 본 문서를 통해 본 위도띠뽀놀이 願堂의 위상

위도띠뽀놀이의 신앙 대상이 모셔져 있는 대리 마을 원당은 마을 왼쪽 편 당제(젯)봉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앞에 펼쳐진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상 절벽 위에 세워진 원당은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원당’이라 부르고 있다. 대리 마을 주민들은 평소에 원당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만약 원당 근처에서 나무를 베거나 혹은 주위에 널려진 祭器를 만지면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한다.

위도띠뽀놀이 원당은 맞배지붕의 2칸 기와집으로 지워져 있으며, 기와집을 중심으로 낮은 돌담이 둘러져 있다. 당집의 본 건물은 당신이 모셔진 당집 안, 그리고 제기 등이 놓여 있는 마루 공간으로 구분된다. 당집은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2000년도에 風雨로 헐거워진 것을 보수 한 것이다. 위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당은 산 정상 절벽에 자리하고 있어 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보수와 중축을 하였

다고 한다. 오래 전의 중축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주민들의 증언과 필자가 당집 상량문을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87년과 1900년도에 보수를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집이 위낙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훼손이 있을 때 마다 보수를 하다 보니, 그 횃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위도띠뱃놀이 원당에 모셔진 堂神은 모두 12서낭이나, 실제 원당 안에는 10位만이 모셔져 있다. 당에 모셔져 있는 신은 원당마누라를 비롯해 본당마누라·옥저부인·애기씨·물애기씨·신령님·산신님·장군님·문수영대신 둘이다. 이들 당신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당의 主神



〈그림 2〉 추렴자들의 주요 지역

은 원당마누라이다. 원당에 모셔진 여러 신들은 신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차이가 있으나, 주로 마을의 평안과 배의 안전, 그리고 고기잡이를 돕는 신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대리 마을 주민들은 이들 신이 壽命長壽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특히 애기씨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수명을 보호하는 신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위도띠뱃놀이 원당은 『願堂重修記』의 추렴기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 과거에는 단순히 대리 마을 주민들만을 위한 신앙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비단 이 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기가 많이 잡히던 시절에 위도 근해를 지나거나 조

15) 이 부분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된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2-』(2009)의 ‘위도대리마을 원당(필자 집필, 690-691쪽)’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업을 목적으로 위도를 찾았던 외지 어선들은 위도떠뱃놀이 원당이 보이는 바다 위에서 고사를 지내거나 혹은 직접 배를 몰고 대리 마을을 찾아 원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다.

일찍이 위도 지역이 포함된 ‘七山漁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조기 어장 중에 하나였다. 조선시대부터 여러 지역의 어선들이 조기를 잡기 위해 이곳을 찾았음을 『세종실록』 지리지의 “石首魚產郡西波市坪春夏之交諸處漁船皆會于此網取之官收其稅以資國用”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보이는 ‘波市坪’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날 위도와 인접해 있는 칠산어장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조기가 잡혔던 파시평에 각지에서 몰려온 어선들로 인해 人山人海를 이루었다. 이런 양상은 조선 후기를 비롯해, 『願堂重修記』가 작성된 구한말은 물론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였다. 위도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조기잡이 철이 되면 위도 지역에 전국 팔도에서 온 어선과 일본인들이 거주했었다고 한다. 특히 당시 위도 지역에 조기 파시가 열릴 때가 되면 임시 촌락인 波市村¹⁶⁾이 형성되었는데, 파시촌에는 船具店을 비롯해 목욕탕과 술집 등이 있었다고 한다.

『願堂重修記』의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조기잡이 철에 외지에서 많은 수의 어선과 상인들이 위도를 찾았던 연유는 무엇보다 위도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 어장인 칠산어장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피항지로서 매우 적합했기 때문이다. 또한 위도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기 어업의 주요 어장인 칠산어장의 중심지이자 남·북쪽을 오가는 항로의 주요 길목이었던 점도 외지인들이 위도 지역을 방문했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1900년 무렵의 이러한 양상은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칠산어장에 속한 七山島 주변의 1897년[1897년 2월 26일]도의 풍경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6) 波市村은 파시라는 어시장이 서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파시가 열리는 동안 거주하는 주거지 혹은 임시 촌락을 말한다.

본 군의 칠산도는 매년 봄에 조기 어장이 형성된다. 이 곳 또한 본 군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관원을 보내 제반 사항을 훈시하고 규정대로 세금을 준비하여 상납하게 하였다. 본래 칠산어장은 바다 폭이 백여 리나 되어 팔도의 어선들이 몰려온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배가 근 백여 척이 되며 또한 상선도 왕래하여 거의 수천 척이 된다. 그 어장이 형성된 지 오래지 않고 많은 배들이 모이는 관계로 兵校 黃雲起, 下吏 金甲在와 鄉人 黃健周를 감독관으로 하여 관원들을 통솔하게 하여 어장 사물을 위임하였다. 오늘 출발하니 간략한 훈시를 하였다.¹⁷⁾

정확하게 1900년도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위도 주민들 중에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기잡이 철이 되면 외지의 많은 어선들이 위도 앞 바다로 몰려와 조업했다고 증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어선들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닷배’로 불리는 진도 어선,¹⁸⁾ 배에 썰과리와 징 등을 싣고서 풍물을 치고 다니는 황해도 어선, 그리고 충청도 원산도 어선, 심지어 제주도 어선까지 매우 다양했다. 실제로 비교적 조기 어업이 활발하던 1920-30년대에 대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치도리 마을에서 파시가 열렸는데, 당시 마을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원산촌’·‘황해도촌’·‘제주도촌’ 등이 생겨났다. 이들 임시 촌락은 파시가 끝나면 자연스레 없어졌다고 한다.

위도 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900년도에 작성된 『願堂重修記』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17) 오형묵, 『지도군수 오형묵 정무일기』, 신안군향토문화진흥원, 1992, 166쪽.

18) 닷배는 닷그물로 조기잡이 하는 배를 일컫는 말이다. 닷 그물은 정선망(碇船網) 또는 정망(碇網)이라고도 하는데 어법상으로는 底刺網에 속한다. 기다란 장막처럼 생긴 刺網을 해저 고기가 다니는 길에 닷으로 고정시켜 그곳을 통과하는 고기를 잡는 어망이다. 이 그물에 수십, 수백 켤레의 나무 닷을 채워서 해저 어도에 고정시켜 조기를 잡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그물을 닷그물이라고 부르고 닷그물을 사용하여 조기 잡는 배를 닷배라고 부른다(나승만, 『조기잡이 닷배어로의 변형과 쇠퇴』,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264쪽).

위도 주민들이 진도 지역의 어선을 ‘닷배’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배에 ‘닷’이 달린 그물을 싣고 다녔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자료를 통해 어업을 목적으로 당시에 위도 지역을 찾은 외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위도를 찾은 외지인들이 위도띠뱀놀이 원당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추렴했던 연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위도 지역과 이들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하는데, 특히 추렴인들이 어업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오늘날 어업을 중시하는 지역에서 왔던 인물이라는 점을 통해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대리 마을의 원당과 어떤 연관이 있어 당시 원당 중수에 적지 않은 돈을 추렴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첫째, 외지에서 온 이들이 원당 중수에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은 위도띠뱀놀이의 원당이 당시 서해안 어업민들에게 있어 신앙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도띠뱀놀이의 원당이 단순히 위도 지역, 특히 대리 마을 주민들만의 신앙처가 아니라, 외지인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위도띠뱀놀이의 원당은 외지인들에게도 중요한 신앙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도띠뱀놀이 원당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연평도 충민사에 모셔진 임경업 신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평도 지역을 찾은 조기잡이 어선들은 연평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조기어업을 관여하는 임경업 신이 모셔진 충민사에 들러 제사를 올린 다음, 본격적으로 조기어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연평과 과시평의 통어자는 연평도에 도착한 후, 조기어업의 개척자로 전해지는 임경업에게 제사를 올리는 장군각(마을 뒤 쪽의 구릉에 위치)에 가서 사당앞에서 출어제를 지낸다. 제전에는 미리 준비해 온 소 한 마리를 희생하고 탁주 등의 제물을 올려 풍어를 기원하며, 제사가 끝나면 나팔과 북 등 조선탁기를 연주하고 춤을 춘다. 이 제사는 고기잡이 나가는 조가 매번 돌아가면서 주관하는데, 오래전부터 어민들에게 중요한 제의였다. 따라서 마을을 떠나 이 행사(제의)가 끝날 때까지 목욕재계하여 몸을 청정하도록 하는 등의 엄숙한 관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¹⁹⁾

위의 내용을 통해 위도띠뽀놀이의 원당 역시 당시 연평도의 충민사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조기잡이 철이 되면 외지에서 많은 어선들이 위도 지역을 찾았는데, 이들 외지 어선들은 연평도 충민사의 경우처럼 위도띠뽀놀이 원당 앞을 지날 때면 배를 잠시 정박시킨 다음 배 위에서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직접 배를 대리 마을에 정박하고 난 후 제물을 가지고 원당에 올라가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연평도와 위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위도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죽막동 수성당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타 지역에서 온 배들은 수성당을 지날 때면 고사를 지냈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칠산바다에 이르는 동안 전라북도 변산반도 수성당에 이르면 선원들은 바닷물에 목욕을 하고 수신당을 향해 고사를 올렸다고 한다. 고사는 향해 중에 진행되는데 비록 수성당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 당이 있기 때문에 으레 지내 왔던 것이다. 제사는 준비해 간 소고기와 음식을 차리고 술을 부어 고사를 지내는데, 선원들은 몸 건강과 고기를 많이 잡게 해 달라고 빌었다 고사는 이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물을 처음 투하해서 잡아 올린 고기 중에서 가장 큰 고기를 골라 또 고사를 지낸다. 처음 잡아 고사에 올릴 고기는 사람이 먹지 않고, 비늘도 벗기지 않으며, 칼도 대지 않는 것이 습속이라고 한다.²⁰⁾

외지에서 온 이들이 특정 지역의 신앙처에 제사[고사]를 지낸 연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의 신에게 無事航海를 기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신앙처에 모신 신이 어장을 관여하고 있기에 이들에

19) 延平波市坪への通漁者は、延平島に到着後直ちに、グチ漁業の開拓者伝える林慶業を祀る將軍閣(部落背後の小丘にある)に詣り、その祠前に於て出漁祭を舉行する。祭典には予め用意して來た牛1頭を殺し、濁酒その他の供物を供えて豊漁を祈り、終ると共にラッパ・太鼓等朝鮮の樂器を奏して踊る。その祭祀は出漁者1組毎に順次施行するが、古來グチ漁業者の重大なる祭典である。従つて離郷後、本行事が終了するま(?)では、齋戒沐浴して身の清淨を誓らといふ嚴肅な慣習が、今日も尙伝えられている(吉田敬市, 『波市坪考』, 『人文地理』 통권75, 京都大學, 1954, 385쪽).

20) 태안군·공주대학교박물관, 『황도봉기풍어제』, 1996, 89쪽.

게 고사를 지냄으로써, 그 지역의 어장에서 많은 양의 어획고를 올리기를 바라기 위함이다. 물론 이 점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지 어선들이 특정 지역의 신앙처에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올렸던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고민할 수 있다. 해안 지역, 특히 서해안 여러 지역의 마을제사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뱃기내림’이라는 제의과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²¹⁾ 일반적으로 뱃기내림은 한 해 동안 배에서 모실 선왕[배서낭, 신]을 마을곳의 주관자인 무당이 배 선주에게 접지해 주는 것이다. 뱃기내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위도띠뱃놀이의 뱃기내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각 어선의 선주들이 일년 동안 자기네 배에 모실 서낭을 내림받는 곳이 깃곳이다. 무너는 선주에게 “원당서낭님을 받을건가”하면 “예, 원당서낭님을 받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러면 무너는 선주의 손바닥에 산썰을 몇 알 집어 놓아주는데 이 썰의 수가 짝수가 되면 그 서낭과 연분이 되어 내림을 받게 되고 홀수가 되면 그 서낭을 받지 못하고 다른 서낭을 같은 방법으로 내림받는다. 산썰이 계속 홀수가 되면 짝수가 될 때까지 서낭을 받는다. 선주의 손바닥에는 놓인 산썰이 되어 서낭이 내려지면 그 서낭의 이름을 한지에 적어 주는데 이것을 깃손 또는 길지라고 하며 이 깃손을 뱃기(5색기)의 꼭대기에 묶는데 이것이 바로 ‘깃손받기’이다. 깃곳은 선주에 대한 축원과 풍어를 기원하고 어선 하나 하나의 뱃기에 깃손을 내리는 곳으로, 일명 선주굿이라고도 한다.²²⁾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뱃기내림은 배를 가진 선주가 자기의 뱃기를 가지고 당에 올라가 무당에게 한 해 동안 모실 배선왕[배서낭]을 내려 받는 의

21)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제이라 할 수 있는 외포리 도당굿, 서해안배연신굿, 황도의 봉기풍어제, 고창 동호리 당제, 안마도 당제, 흑산도 제의에도 선주굿과 뱃기내림이 있다.

22) 하효길, 『한국의 풍어제』, 대원사, 1988, 116-117쪽.

레다. 뱃기내림은 원당에서 제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행해지는 것으로, 위도 지역에서 큰 파시가 열리던 시기에는 위도띠뱃놀이가 있는 날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어선들은 서로 먼저 내림굿을 받으려고 당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²³⁾ 그리고 내림굿이 끝나면 선주들은 각자의 뱃기를 들고 마을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자기들의 배로 달려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기를 배에 꽂는 배가 그 해 제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²⁴⁾ 주강현의 연구에 따르면 “서해안 지역 어업민들은 조기잡이를 떠나기 전인 정월과 2월에 임장군을 모시고 마을굿이나 뱃고사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조기잡이를 떠나서도 연평도에 가면 반드시 임장군 사당을 찾아가서 가져간 백미로 떡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조기잡이를 파송치고 와서도 다시 정성껏 당에 고사를 올렸다.”²⁵⁾ 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위도띠뱃놀이 원당은 서해안 지역 어업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신앙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신앙처와 달리 위도띠뱃놀이 원당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도 지역 원당이 대표적인 조기어장인 칠산어장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위도 원당에 모셔진 신의 영험성이 다른 지역 지역의 신과 달리 매우 뛰어난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서해안 지역에서 만난 여러 지역민들은 ‘위도에 가면 반드시 대리 마을 원당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어장에서 조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²⁶⁾’라고 말하는

23) 특히 일제강점기의 조기파시 때의 위도띠뱃놀이는 외지어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모실 배선왕[배서낭]을 받기 위해 수많은 어선들이 띠뱃굿의 뱃기내림에 참여했다. 특히 원당에 모시고 있는 신은 효험(效驗)이 좋아 당시에는 서로 먼저 뱃기를 내려 받으려고 싸움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24) 이러한 모습은 연평도와 그리 멀지 않은 외포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1972년도에 이곳을 조사한 김순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외포리에는 뱃배가 많이 드나들던 곳이고 뱃배의 성수기가 바로 2월이었다는 것과 필자가 1972년 조사할 때 부락민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외포리의 당은 서해안 일대에서 가장 큰 당이었기에 서해안 각지의 어선이 조기잡이가 시작되기(흑산도로부터 잡기 시작하여 북상할) 전 뱃기를 내려 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한다(김순제, 『곳창굿·연산굿·인천지역무속(서평)』, 『비교민속학』 4, 비교민속학회, 1989, 67-8쪽).

25) 주강현, 『서해안 조기잡이와 어업생산물습』, 『역사민속학』 1, 역사민속학회, 1991, 106-107쪽.

26) 이런 내용은 필자가 현지 조사를 한 충청남도 원산도·효자도, 그리고 경기도의 덕적도·연평도

내용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서해안 지역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일정한 신앙공동체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중심에 위도띠뱃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연평도의 임경업 사당이 연평도와 황해도 일대를 관여하는 신인 반면, 위도띠뱃놀이 원당은 조기어업의 중심 어장인 칠산어장을 관여하는 신앙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서해안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임경업 신앙이 주로 연평도를 중심으로 황해도·경기도·충청도 북부 지역에서 보이는 이 유와도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²⁷⁾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수집한 『願堂重修記』(1900)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이 자료의 추렵기 부분의 분석을 통해 위도띠뱃놀이 원당의 위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위도 지역은 오래전부터 조기잡이 어업의 근거지라는 사실과 『願堂重修記』에 위도와 인접한 전라북도 지역은 물론 황해도·충청도·전라남도 지역 어선들이 돈을 추렵했다는 기록 등을 보면 위도띠뱃놀이 원당은 어업민들에 있어 당시에 매우 중요한 신앙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임경업을 마을신으로 모시고 있는 연평도 충민사가 연평도 어장을 관여했던 신앙처였다는 점에서 보면 위도띠뱃놀이의 원당은 연평도 어장과 함께 서해안의 대표적인 조기 어장인 칠산어장을 관여하던 신앙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위도띠뱃놀이가 열리면 외지의 어선들이 여기에

주민들의 증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39-143쪽 참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어선들은 한 해 동안 자기 배에 모실 신을 위도띠벳놀이의 벳기내림 과정에서 내려 받았다는 구술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추정 이 결코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900년에 기록된 「願堂重修記」는 바로 위도띠벳놀이가 이 무렵에 서해안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과정에서 「願堂重修記」는 위도띠벳놀이가 행해졌던 위도 지역이 당시 조기잡이 어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런 영향으로 인해 위도띠벳놀이 원당은 위도 지역을 찾은 외지 어선과 상선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900년만 하더라도 서해안 지역은 일정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願堂重修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추후 면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본 문서의 추렴기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과 함께 외지 어선들이 타고 다녔던 선박[어선·상선·대소선]의 종류, 그리고 조기 어업과 관련된 당시의 어로기술과 판로방식 등을 고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願堂重修記」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김정호, 『大東地志』,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6.
- 국립민속박물관, 『蠓島의 民俗-大里願堂祭篇-』, 198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2-』, 2009.
- 김재근, 『우리 배의 歷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태안군·공주대학교박물관, 『황도봉기풍어제』, 1996.
- 오형목, 『지도군수 오형목 정무일기』, 신안군향토문화진흥원, 1992.
- 하호길, 『한국의 풍어제』, 대원사, 1988.
- 김순제, 「고창군·연신군-인천지역무속(서평)」, 『비교민속학』 4, 비교민속학회, 1989, 166-171쪽.
- 나승만, 「조기잡이 닻배어로의 변형과 쇠퇴」,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263-291쪽.
- 박혜준,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위도뽕벚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종원,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문현, 「1892년 순창군수의 부임과 그 비용-순창군의 회계문서 『고청결총여연례응상하이정절목록』의 문
석-」, 『생활문화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19-29쪽.
- 주강현, 「서해안 조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58-128쪽.
- 吉田敬市, 「波市坪考」, 『人文地理』 통권75, 京都大學, 1954.

A Study on 「Wondang Repairing Record」(1900) of Wido-ttibaennori

Seo, Jongwon*

This study has its purpose in introducing 「Wondang Repairing Record」, a document related to Wondang, the temple of Wido-ttibaennori and examining what function and role[phase] the ‘Wondang’ of Wido-ttibaennori played as a locus for faith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recorded in this material.

「Wondang Repairing Record」is a document that is handed down in the family of Dalseong Seo Clan of Daeri Village where Wido-ttibaennori is conducted. This document is a record of the process of repairing of Wondang at the time of 1900, and is largely divided into introduction and collection record. In the introduction, why Wondang came to be repaired at that time is recorded, and in the repairing record part, the figures that collected money in the process of repairing the Wondang are clarified. The contents of repairing record can be again divided into Wido natives and strangers, and in this document, the list of collectors belonging to various regions in Jeollabuk-do, Jeollanam-do, Chungcheongnam-do, Hwanghae-do and Jeju-do among strangers is recorded.

The value of 「Wondang Repairing Record」 as a material can be considered in various aspects, but above all it has its significance in the point that we can steal a glance at the fact that at that time Wondang of Wido-ttibaennori was very important in the way of faith through the contents of collection record tha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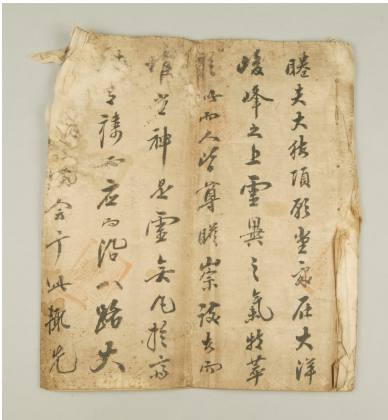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ecorded in this document. It is also a literature material that concretely shows the story[an oral material] that many strangers came to Wido early due to yellow corvina fishing. In addition, it can be concretely checked that Wondang of Wido-ttibaennori did not only stay as a locus for faith of Daeri Villagers but also was a main locus for faith of fishers of the West Coast together with Chungminsa, the shrine of Kyoungeop Lim of Yeongpyeongdo by examining on the basis of the repairing record part of this doc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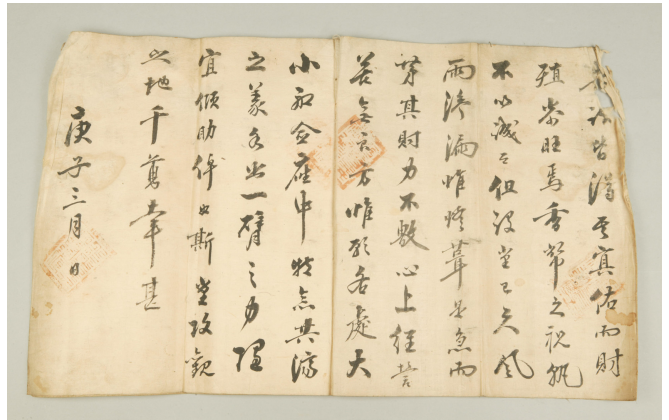
Key Words : Wido-ttibaennori, Wondang Repairing Record, Wondang, collection record, yellow corvina fishing

| 논문투고일 : 2011.04.30 | 심사완료일 : 2011.06.02 | 게재확정일 : 2011.06.15 |

〈「願堂重修記」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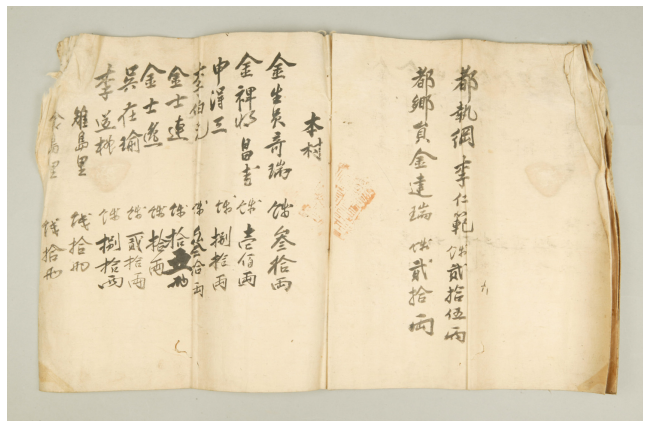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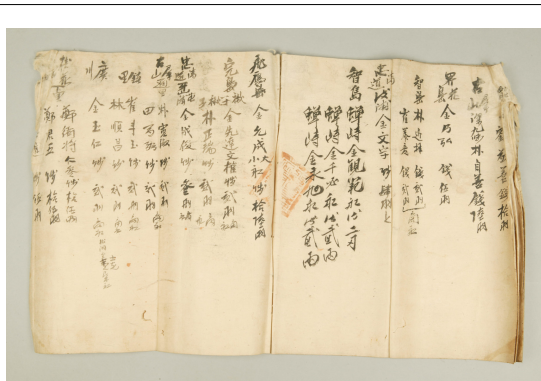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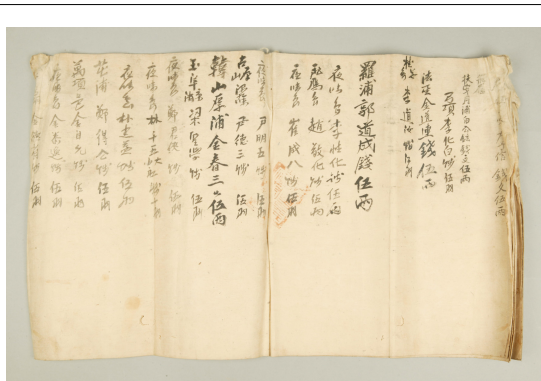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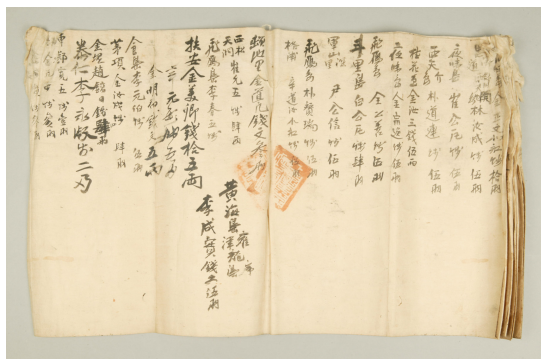
〈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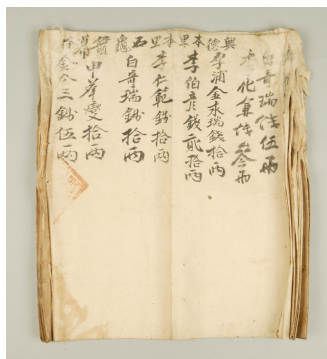
〈8-9쪽〉



〈10-11쪽〉



〈12-13쪽〉



〈14쪽〉